

김경열 교수의 이사가는 거룩한 백성

제10강: 아론의 죽음과 이후의 행진(20-21장)

I. 오늘의 포인트

- 1) 20장이 왜 민수기의 새로운 전환점인지 논의한다(20장)
- 2)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에서 나타난 시간표를 점검한다(20장).
- 3) 호르산에서 모압 광야까지의 여정과 여러 전투들을 살핀다(21장).

II. 본 강의

1. 새로운 전환점인 민수기 20장

- 1) 민수기 20장까지의 내용 요약과 이후의 문맥

A. 1차 인구조사와 광야 여행의 준비

(제 1강: 민수기 개론)

제 2강: 1차 인구조사와 진영의 배치(민 1-2장)

제 3강: 레위인의 성막을 위한 임무(3-4장, 8장)

제 4강: 거룩한 진영을 위한 법들(5-6장)

제 5강: 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(7, 9-10장)

B. 배교로 얼룩진 광야에서의 여정

제 6강: 바란 광야까지의 불평의 여정(11-12장)

제 7강: 바란 광야에서의 정탐과 배교(13-14장)

제 8강: 제사법의 보완과 고라 일당의 반역(15-16장)

제 9강: 사제들의 직무(17-19장)

제10강: 아론의 죽음과 이후의 행진(20-21장)

제11강: 발람 이야기(22-25장)

C. 2차 인구조사와 가나안 입성 준비

제12강: 2차 인구조사와 땅에 들어갈 준비(26-31장)

제13강: 땅 분배와 관련된 규정들(32, 34-36장)

제14강: 40년 광야 여정의 총정리(33장)

- 2) 민수기 20장의 중요성

- (1) 정탐꾼 보고 대회 이후 38년간의 방랑이 시작되는 시점
- (2) 그러나 38년간의 여정 대부분은 공백으로 남겨진다. 왜?
- (3) 제40년의 사건들로 직행한다: 아론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들

2. 민수기 20장의 시간표

1) 미리암 죽음의 시점은? “첫째 달에”에 대한 두 견해
제3년 1월인가? 아니면 제40년 1월인가?

(1) 제40년 1월 설

- 20장 서두에서 미리암 사망
- 20장 끝에서 아론 사망: 제 40년 5월 1일(33:39에서 확인)
- 두 죽음의 간격이 3년에서 40년 사이일 수는 없다.
- 모세의 불순종(두번 바위를 칩)은 막바지 사건이어야 한다.
: 징벌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
- 이 경우 19장과 20장 사이에 38년의 시간의 도약

(2) 제3년 1월 설

- 미리암 사망 시기에 대한 암시: 사망 직후인 3절
“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
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
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”
- 고라 사건은 초기임이 분명함
- 이 경우 20장의 시간표는 크게 달라진다.

2) 제3년설에 근거한 20장의 내용 시간별 정리

날 짜	내 용
제3년 1월	미리암 사망(1절): 미리암의 나이 80세 안팎 (아론 38년 후 123세에 사망)
제3년 1월 직후	물 불평 사건과 모세의 불순종(2-13절)
제3년 이후	에돔 땅 통과 실패 우회와 오랜 기간 방랑(14-22절)
38년 기간(공백)	“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”(22절) 민수기 33장에 여정표가 정리됨
제40년 ?	호르산 도착. 호르산 = 모세라(신 10:6)
제40년 5월 1일	아론의 사망 (25-29절): 민 33:39에서 언급

왜 38년간의 기간이 공백 처리 되었는가?

아마도 비슷한 방식의 삶이 계속: 배교와 불순종의 반복

결국 광야 40년 방랑기는 초기 사건과 말기 사건에 집중되어 있음

3) 20장의 두 핵심 인물의 죽음의 의미

(1) 미리암과 아론은 제1세대의 핵심 인물

(2) 초기의 죽음과 말기의 죽음은 제1세대 전체의 죽음을 의미

(3) 20장은 에돔 통과 실패 후 오랜 우회를 축약함

(4) 이것은 정탐꾼 보고대회의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줌

3. 식수 불평과 모세(와 아론)의 불순종(2-21절)

1) 고라 사건 직후의 백성들의 충격적 발언

“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
차라리 더 나았을 것이다”(3절)

- 그 당시에도 동일한 불만 “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을 죽였다”(16:41)

“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
우리과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
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
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
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” (4-5절)

2) 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모세

- 하나님의 명령: “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”

-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칩 - 물이 넉넉히 솟구침

- 징계: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감

- 그러나 바위에서 물이 터짐

3) 모세의 행위가 불순종인 이유

(1) 하나님에 대한 불신: 어떻게 말로 바위에서 물이?

(2) 혈기를 부림

(3)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 하는 심리: 자신의 영광을 추구

(4) 자신의 경험을 의지: 출애굽 직후의 식수 문제에서(출 17:5-6)

4) 미리바라는 지명의 유래: “다툼”

* 참고: 시내산 도착 전의 비슷한 사건들은 어떻게 이해?

- 만나/메추라기, 식수 공급, 아말렉 전쟁

- 동일한 사건들의 두 가지 판본?

- 아마 이 한달 반의 경험은 향후 40년 경험의 맛보기, 축소판

- 같은 지명은 어떻게 이해? 춘천에 있는 명동과 효자동...

5) 에돔 땅을 우회하다(14-21절)

(1) 이스라엘의 제안

- 물값과 통행료 지불하겠다

- 왕의 대로로 지나가겠다

(2) 에돔의 거부

5. 아론의 후계자 엘르아살의 대제사장 임명(25-29절)

- 호르산에서 임명식: 대제사장 옷 입힘
 왜 장소가 성막이 아닌가?
- 아론 생전에 엘르아살이 아론 대신 중책을 많이 맡음

4. 호르산에서 모압 광야까지의 여정(21:1-20)

바란 광야(=신 광야) 가데스에서 호르산까지 (20장)

- 에돔 통과 실패
- 38년 간의 광야 방랑
- 호르 산에 도착
 : 엘르아살의 대제사장 후임 임명식, 아론의 죽음(25-29절)
- 호르 산 출발: 약간 북상(네겝 지역)

네겝에서 모압 광야 비스가 산까지 (21:1-20) - 민 33장을 참고.

- 1) 네겝에서 아랏과의 전투: 승리함. 호르마라 부름(21:1-3)
- 2) 남하하는 도중에 불평과 불뱀 재앙
 - 에돔을 재차 우회해서 남하하자 백성들 불평
 - 또 다시 모세의 중재와 탄원
 - 불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아남
 - 불뱀 = 예수님(요 3:13-15)
- 3) 모압 광야 비스가 산까지(21:10-20) - 민 33장을 참고
 - 중요한 두 지점: 세렛과 아르논
 - (1) 세렛 골짜기(세렛 강) 도하: 에돔과 모압 국경
 “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
 삼십팔 년 동안이라”(신 2:14)
 : 에돔 통과(신 2:1-8)
 - (2) 아르논 골짜기(아르논 강) 도하: 모압과 아모리 국경
 : 모압 통과(신 2:8-9)
 - * 모압 광야 근처의 비스가 산에 도착함

5. 모압 광야에서의 여러 전투(21:21-35)

- 1) 모압 광야 근처 비스가 산꼭대기에 도착
 - * 아바림 산, 비스가 산, 느보산의 관계?
- 2) 모압 광야의 역사
 - 원래 모압의 영토

- 아모리 족속이 모압을 남쪽으로 밀어냄
- 아르논 강이 국경선이 됨
- 그러나 국경 수비가 허술해서 이스라엘이 넘어감

3) 아모리 왕 시혼을 격파함(21-32절)

- 아모리 왕 = 헤스본 왕(신 2:26)
- 시혼과의 협상과 협상 결렬, 시혼의 선공
- 이스라엘의 승리: 압복강까지 진격(암몬 땅 근처)

4) 바산 왕 옥을 격파함(33-35절)

- 바산은 압복강 북쪽의 아모리 족 세력
- 바산 왕도 아모리 족속의 왕: 아모리는 집단 연맹체
- 신 3:11은 바산 왕 옥이 거인이었다고 말함: 침대 9규빗, 4규빗
- 바산 왕이 먼저 선공: 방어와 보복
- 60개 도성이 정복되면서 진멸(헤렘)

5) 갑자기 얻은 보너스 땅: 요단 동편 - 르우벤, 갓, 므낫세 반 지파의 몫

III. 오늘의 적용

- 1)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돈, 명예라는 애굽 땅을 그리워하지 않는가?
- 2) 우리에게는 모세의 혈가, 혁명심, 아집이 없는가?
- 3) 우리는 늦잠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자.
- 4)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군대였듯이 우리도 그러하다.